

통권 제 240호

강남. 라 00943

2567
2023

10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17
세상을 향한 빛



살다 보면
좋은 날



십선성취
받아들임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불교충지중

정진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이 다른 것을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 공부 _44

잘 가, 베짖이!

_ 유소림



동행 _50

진정한 행복이란

_ 탁상달



속담으로 보는 불교 _62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_ 김성철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중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 12 불교이야기
- 18 마음챙김 메커니즘
- 22 경전에서 찾은 지혜
- 25 문화재 해설
- 28 산책
- 30 살다보면
- 36 지장 스님의 향유
- 41 마음의 등불
- 44 마지막 공부
- 47 씨앗 한 알
- 50 동행
- 54 지혜의 뜨락
- 58 십선성취
- 62 속담으로 보는 불교
- 66 나만의 빛, 모두의 빛
- 70 금쪽상담소
- 72 서원당 안의 불교
- 76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 78 법회일정

- 불공 잘해라 - 세상을 향한 빛 - 김천
- 업 이야기 3 - 화령 정사
- 선천적 괴로움 - 임진수
- 보살의 여덟 가지 성도 - 불교총지중 법장원
- 백자 청화 투각 모란당초무늬 항아리 - 위드다르마 편집실
- 무안황토갯벌에 서면 - 오대혁
- 좋은 날 - 이옥경
- 어느 가을날의 꿈 - 지장 스님
- 부디 더디 늙으시길 - 김성애
- 잘 가, 베짖이! - 유소림
- 두려워 말고 저질러 보라 - 법상 스님
- 진정한 행복이란 - 탁상달
- 어사 박문수 설화 속 여성장애인 - 방귀희
- 받아들임 - 남혜 정사
-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 김성철
-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원
-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 본존 양 끝의 액자는 무엇일까요? - 해광 정사

준비의 힘

영국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성공의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

성공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 됨됨이가 기본 바탕이 됩니다.

인격과 능력이 배제된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단돈 만 원을 벌더라도

이미 수천만 원 가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나를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면서

스스로를 갈고닦아보세요.

조금 느리고, 조금 작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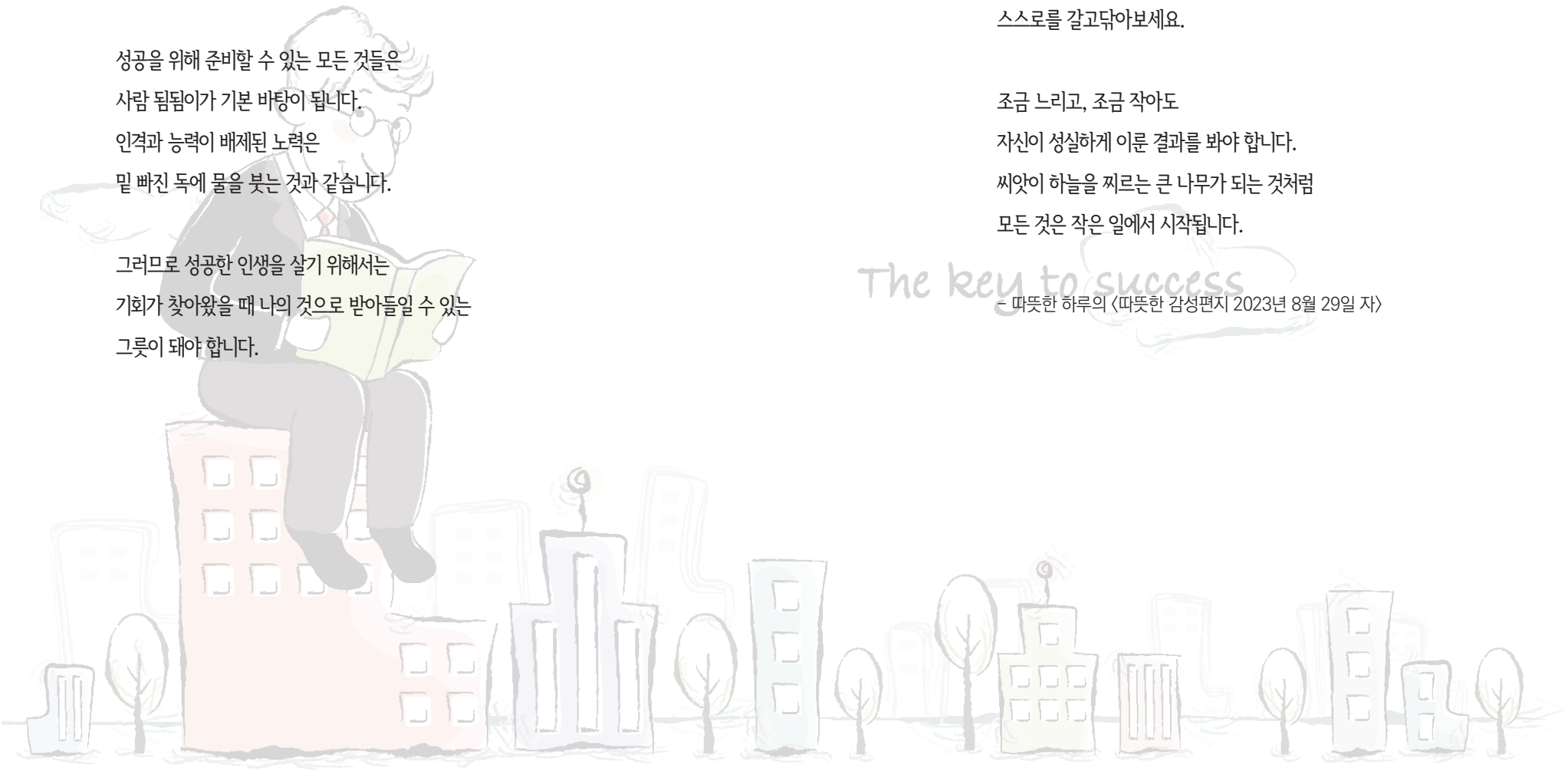
자신이 성실하게 이룬 결과를 봐야 합니다.

씨앗이 하늘을 찌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The key to success

-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3년 8월 29일 자>



불공 잘해라 세상을 향한 빛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即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10화 - 새로운 길 4

1958년 드디어 경전의 정수를 모은 '총지법장'이 완성돼 4월 20일 대구 남산동 심인당에서 배포 불사가 진행됐고, 6월 15일에는 '응화성전'이 간행됐다. 밀교의 뼈와 살이 이루어진 것이다. 왜 이 시대에 밀교 수행이 필요한 것인지, 현교와 어떤 부분이 같고 상이한 것인지가 정립되었다.

경전을 배포하면서 대성사는 늘 간절히 당부했다.

“경전 말씀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르침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니 경을 대할 때는 언제나 지금 내 앞에서 부처님께서 나를 위해 이 가르침을 편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

님을 친견하는 길이 되고, 불보살님의 가치를 입는 방법이며, 법계와 일체가 되는 법입니다. 이제 경전이 갖춰졌으니 진리로 향하는 길잡이 삼아 바른 길로 걸어갑시다.”

경전을 펼치면 그곳에 진리의 세계가 있으니 어느 때라도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만나라는 당부였다. 당시 현교 교단 어느 곳도 통일된 성전을 갖추지 못했던 실정에 비추어 보면 대성사의 역경과 경전을 반포하는 불사는 시대를 앞서간 길잡이가 된 것이다.

밀교 수행으로 산중 사찰과 출가자 중심의 불교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수행과 수행의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은 불교의 흐름을 바꿀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경전을 우리말로 풀어 써서 누구나 뜻을 알 수 있고 마음에 새겨 실행할 수 있게 한 '응화성전'은 수행뿐 아니라 현실 세계의 지표가 됐다.

당시 불교계가 비구·대처 분쟁과 정화의 소용돌이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이끌 지도력을 보이지 못할 때 신생 밀교 종단의 이 같은 행보는 혼란한 한국 현대불교사에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단의 체계에 맞춰 새로운 해석과 편찬을 한 것은 시대를 앞서

간 일로서 대성사의 종교적 통찰력의 결과물이다. 적어도 밀교 수행자들은 어두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미래를 향해 길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진각종은 서울로 근거지를 옮겼지만, 여전히 종단의 중심축은 대구에 있었다. 대구는 종단의 주요한 기반인 종립학교 심인중 고등학교뿐 아니라 교도 층도 여전히 많고 활발했던 곳이다. 종단 인재도 대구와 경북 일원에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었다. 특히 종단의 발상지인 대구 남산동 심인당은 여러 모로 상징적인 곳이다.

대성사는 1954년부터 남산동 심인당에서 교화하며 서울을 오가면서 교단 일에 전념했다. 서울은 교도들의 결집과 대사회적 행사가 아직은 어려운 제약이 있었지만, 대구는 언제든 종단의 결정으로 대중 집회와 사회적 발언이 가능한 이점이 있었다.

세상과는 달리 이 시절 대성사는 수행과 생활에서 평온함을 누리고 있었다. 전쟁 중 잃을 뻔했던 외아들은 학교로 복귀해 학업을 마치고 은행에 취직해 일하고 있었다. 남산동 관사는 찾아오는 교도들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았다. 언제나 편안히 대해줄 뿐 아니라 신앙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 어느 것이나 진심으로

길을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스승은 교도의 사정을 잘 알아 보살피고 그를 위해 불공해야 한다는 것은 당시부터 대성사가 세운 스승의 원칙이었다.

“교도로서 병이나 급한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스승에게 알려야 한다. 스승은 그 사정을 잘 알아서 찾아가 살필 일이 있으면 찾아가야 하고, 정진해야 할 것은 정진하고 회사해야 할 것은 회사하여 모든 재해와 고난을 없애주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항상 그를 위해 불공해 주어야 한다.”

가르침 그대로 교도들의 생활을 살피고 좋은 일이 생기도록 이끌었다. 불공이 필요하면 불공하고, 재앙을 물리칠 필요가 있을 때와 정진이 필요할 때를 가려 일렀다. 종교는 단순히 옛 가르침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을 구제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당연히 남산동 사옥에는 사람들이 몰렸고, 심인당도 늘 활기가 넘쳤으며, 새로운 교도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끝났지만 혼란은 막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국제정세와 국내정치 상황은 전후의 평화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갔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상이지만 종교인 또한 국가와 사회의 일원인 것도 사실이다. 대성사는 일제 강점하

에 겪었던 일들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다. 국가의 운명이 혼란을 겪을 때 종교와 수행 또한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다.

대성사는 진각종의 대표인 선교로서 세상에 대한 불교적인 발언이 필요할 때마다 앞서서 지혜를 제시했다. 종단을 대표할 만한 위의를 갖추고 현실을 꿰뚫는 문장력으로 세상을 향해 종교적 가르침을 펼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1958년 3월부터 일본의 재일교포 북송 움직임이 있자 전국적인 항의가 일어났다. 3월 16일 대구역 광장에 정치 사회 종교단체들이 모여 북송반대 궐기대회가 열렸다. 대성사는 종단의 대표자로서 그 자리에서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전문을 낭독하였다.

자유와 종교, 그리고 국가관은 대성사의 확고한 신념이다. 자유가 없으면 종교의 생명도 시들어간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며 자주와 자각의 근거라는 것이 대성사의 믿음이다. 자유세계의 생명이 곧 자유와 종교에 달려 있기에 자유를 억압하거나 타인의 자유를 박탈할 만한 행위를 보면 당연히 항의하는 것도 종교인의 책무라고 가르쳤다.

“만약 고귀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그것은 반드시 착한 사람



1964년 법의정대 및 제1회 구족계단기념 사진

이 되는 조건이 될 것이다. 만약 악인에게 자유를 준다면 그 자유는 방종으로 바뀌어 다른 사람과 대중의 자유를 침해하고 짓밟게 된다. 그 피해와 독이 주는 폐해가 커서, 종교로써 가르쳐 인간성을 바로 잡은 후에 자유를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자유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삶을 결정해 나가는 자주^{自主}이며,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스스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자제^{自制}이다. 자주가 있어야 자각^{自覺}이 있고, 자제는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계행^{戒行}이 된다. 선을 행하게 되면 곧 자주가 바로 선다. 자제는 곧 악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자유와 종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지고 곧 자유세계의 생명인 것이다.”

이념과 사상의 대립으로 전쟁터가 되고 무간지옥으로 변했던 현실에서 벗어나 평화의 세계를 꿈꾸었으나 현실은 또다른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시대적 혼돈 속에서 대성사는 국가와 민족과 종교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밝혀 앞장서 나갔다.

1959년 세계 불교도들이 함께 아픔을 느낄 비극이 벌어졌다. 불교국가로서 특히 밀교 수행의 정수가 보존된 신정국가 티베트가 중국의 침략을 맞았다. 소위 서남공정이다.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인민해방군은 종전이 되자마자 쓰촨성에서 부터 티베트를 침공하기 시작했다. 잘 무장된 병사들은 거칠것 없이 종교적 가르침이 지배하는 세계의 고원으로 밀어닥쳤다. 유물론과 공산주의의 관점에 승려와 봉건귀족들은 인민을 착취하는 계급으로, 그 자체가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티베트 압도와 캄 지방에서 저항이 있었지만, 현대 무기로 무장하고 한 차례 전쟁을 통해 훈련된 병사들 앞에서는 적수가 되지 못했다.

승려와 사원이 파괴되고 제14대 달라이라마는 인도로 망명했다. 3월 22일 라싸가 함락되고 포탈라궁이 인민해방군의 수중에 넘어가자 대성사는 종도와 함께 대구역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침략에 항의하는 결의문과 유엔과 미국 지도자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념 대립으로 냉전이 시작되는 시기 민주

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대성사의 의지는 확고하였으니, 자유와 평등의 갈등에 대한 해법은 불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람들은 다 자유와 평등을 말하나 둘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개념이다. 민주국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자유이다. 자유와 평등은 일치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유로우면 불평등해진다. 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통제하면 부자유하게 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를 통제한다. 그런데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결인이요, 가장 평등한 곳은 감옥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은 결인이 되는 것과 감옥에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불교는 자유와 평등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해탈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한꺼번에 얻는다. 불교^{佛敎}처럼 자유로운 것이 없고 평등한 가르침이 없다.”

전후 이념의 갈등과 정치적 대립에 대한 불교적인 해답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에도 대성사는 사회적 문제를 대할 때 물러서서 방관하지 않고 불교가 내놓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과 방향을 줄곧 제시했다. 종립 심인중고등학교는 진각종이 지향하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반이 되었다. 오랜 기간 교육자로 일했던 대성사의 경력은 학교 운영과 교육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업 이야기 3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서입니다. 정자와 난자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적 성질이 자식들에게도 이어져 얼굴 모양이나 신체적 특징들이 희한하게도 자식들에게 이어집니다. 부모를 닮지 않은 자식은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쪽을 많이 닮거나 어머니 쪽을 많이 닮는 경우는 있어도 영 동떨어진 모습의 자식이 태어나는 일은 드뭅니다. 간혹 부모를 닮지 않은 자식도 더러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쪽을 닮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은 이러한 특징이 잘 버무려져서 외양이 훌륭한 자식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모양뿐만 아니라 성격에서도 그러한 부모나 윗대의 특징들이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업의 에너지가 정자와 난자를 매개로 하여 나타난다는 것은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이러한 유전자만으로는 설명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정자와 난자를 통하여 부모의 유전적 특징이 자식에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동시에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성질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특정 분야에 뛰어난 재능

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그렇지 않은데 자식은 난폭한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것을 전생을 통하여 누적된 업의 힘, 즉, 업력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만 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의 생식 세포에 의하여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그와 비교할 만한 조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자신은 왕실의 혈통이 아니라 성스러운 붓다의 혈통이었습니다.

불교에는 부처님께서 이번 생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과거세의 수많은 공덕으로 부처의 몸을 이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부모의 생식세포와 유전자는 우리의 탄생에 절대적인 요소이며 매개체이지만 그 속에는 업력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업력에 따라 아름답고 추하며 건강하고 나약함, 좋은 환경과 열악한 환경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생물학적 특징은 이어받지만 그 이상의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만 관찰해 보면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차별을 업력의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 불교이지만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과거의 업에만 돌리지는 않습니다.

업력은 중요하지만 불교 철학에 기술된 24가지 인과 조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힌두교 등에서도 업을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업은 인간을 속박하는 하나의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철저한 계급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과거의 업에 의하여 어떤 특정한 계급에 태어나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스라이팅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숙명론입니다. 그러나 붓다께서는 “모든 행복, 슬픔 또는 중립적인 감정이 경험되는 것은 모두 이전의 어떤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잘못된 견해를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행동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살인자, 도둑, 추악한 자, 거짓말쟁이, 비방하는 자, 수근거리는 자, 탐욕스러운 자, 악의에 찬 자, 비뚤어진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이전의 행위를 근본 원인으로 삼는 자에게는 하려는 욕구도, 하려는 노력도, 이 일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저 일을 삼가야 할 필요도 없게 된다.”

『증일아함경』

이러한 말씀은 모든 신체적 상황과 정신적 태도가 오로지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다는 믿음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업이라는 굴레에 묶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을 경계하신 말



씀입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나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시에 죽게 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이 지은 업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의 작용에 대하여 인간의 의지로서 형성되는 업과 자연과학적, 물리적 업의 형성 등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가 나는 곳에 가 있었던 자기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라는 업력에 의하여 전적으로 자연재해를 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업력 불가사의’라고 하여 완전히 깨달은 붓다만이 그 업력의 모습을 바로 본다고 했겠습니까?

만약 현재의 삶이 우리의 과거의 행동에 의해 완전히 조건화되거나 완전히 통제된다면, 업은 확실히 운명론이나 사전 결정론과 같게 되어 현재와 미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유 의지는 터무니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삶은 프로그램화된 기계적 조작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고 미래를 지배하는 전능한 신에 의해 창조되었든, 아니면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과 관계없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삶의 과정을 통제하는 거부할 수 없는 과거의 업에 의해 창조되었던지 이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되며 유일한 차이점은 신(God)과 업(Karma)이라는

두 단어에 있다고 해야지요.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두 힘의 극적인 작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신의 힘이나 힌두교의 업은 숙명론, 혹은 결정론이 되어 버립니다. 인간의 의지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신의 예정대로 살아야 한다든지 과거의 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숙명론이나 태어난 연월일시에 의하여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주나 명리 등의 결정론을 불교는 배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틀은 과거의 생각이나 행위에 의한 업력에 좌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업력에 개입하는 물리적, 자연적 요소들도 일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연재해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그것을 반드시 업력만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업을 형성하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의 생각과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항상 선업을 축적하여 악업의 형성을 막고 미래의 불행을 방지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업은 즐거운 과를 낳고 나쁜 업은 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선인낙과, 악인고과善因樂果, 惡因苦果라는 업의 성질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천적 괴로움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태생적인 괴로움과 숙명적인 괴로움

괴로움에는 선천적인 괴로움과 후천적인 괴로움이 있다. 그 중 선천적인 괴로움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과 같은 태생적인 괴로움과 외모, 기질, 환경에 의한 숙명적인 괴로움으로 나뉜다.

태생적인 괴로움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괴로움을 말한다. 즉 생노병사로써 태어나 나이를 먹고 아프며 늙고 죽는 과정이다. 인간이 병들지 않고 늙지 않으면서 죽지도 않는다면 괴로움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병들어 괴롭고 늙어서 서러우며 죽음이 두려워진다. 이는 태어난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가지는 근본적인 괴로움이다.

숙명적인 괴로움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갖게 되는 타고난 능력과 환경을 말한다. 인간의 삶은 태어났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등하지 않다.

첫째, 외모와 재능이 모두 다르다. 아름답고 추한 것에 대해 좋

아함과 싫어함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간의 외모는 쓸모없는 껍데기일 뿐이다. 외모에는 얼굴, 체형, 피부색 목소리 건강 등 개인의 개성이 드러난다. 이로 인해 개인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또한 달라진다. 타고난 외모만큼이나 타고난 재능도 인생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지능을 포함한 재능은 한 사람의 인생에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

둘째, 태어난 환경이다. 내가 원해서 어떤 환경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환경은 부모의 생존유무부터 부모의 성격과 지성, 학력과 재력 등 형제들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이 역시 한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셋째, 기력(氣力) 즉 에너지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만의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다. 10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사람들은 5~7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다고 본다. 사람마다 타고난 에너지가 다른데 대체로 건강한 사람들은 많은 에너지를 갖추고 태어난다.

이러한 에너지는 인간이 신체적, 정신적인 활동을 할 때 필요하다. 몸이 힘들고 지쳤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있다. 이 때, 타고난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은 다

른 사람보다 쉽게 지치고 힘들어한다. 사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다섯 가지 감각을 생각해 봤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감촉을 느끼는 감각은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던 세상을 향해 열려있고 접촉하고 있다. 그렇기에 늘 에너지가 필요하다. 심지어 에너지를 가지고 집중할 때, 감각의 대상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타고난 에너지가 적은 몸이 약한 사람들은 세상과의 접촉에서 쉽게 에너지가 소비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일반사람들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이들은 다른 보통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보다 선천적으로 더 큰 괴로움을 느낀다. 심지어 육체적인 감각이나 정신적인 감수성이 민감한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낀다.

이렇듯 운명의 출발점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선천적인 운명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주어진 운명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운명적이고 보수적인 삶이 아니라 개척 가능한 개인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는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Nicola powys, 자화상

보살의 여덟 가지 성도^{聖道}

불교총지종 법장원

정견^{正見}이란, 모든 세간을 초월하여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일어나도 끌려다니지 않으며, 상견, 단견, 유견, 무견, 선견, 불선견과 이어서 열반견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그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이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정분별^{正分別}이란, 탐욕이나 성내거나 어리석은 모든 번뇌를 분별하여 일으키지 않으며, 계행과 선정과 지혜, 해탈과 해탈지견을 분별하여 평안하게 머물게 하면 이것을 정분별이라 한다.

정어^{正語}란,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나 착한 친우에게 말이 거스르지 않고 구족하게 서로 응하여 평등해지면 이것을 정어라 한다.

정업^{正業}이란, 악한 업보를 짓지 않고 모두 다 소멸하게 하고, 선한 업보를 화합하여 착한 것만으로 순일해지면 이것을 정업이라 한다.

정명^{正命}이란, 성제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성도를 위하는 까닭에, 몸과 목숨을 원만하게 길러서 난잡한 일이나 거짓으로 속이는 일, 악하게 구하는 것, 많이 구하는 것을 버리며, 남의 이득에 후회와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자기의 이양을 얻었을 때 기뻐하지 않으면 이것을 정명이라 한다.



©Photo by 서강 Leo

정근^{正勤}이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등에 힘쓰지 않고 성스러운 도에 들며, 열반길에 들어가는 데 능히 수순하여 크게 부지런한 용맹을 일으키면 이것을 정근이라 한다. 정념^{正念}이란, 생각을 바른 도에 편안하게 머물게 하여 모든 아침과 왜곡으로 인해 윤회하는 허물을 버리며, 열반의 도까지 알더라도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성도^{聖道}에 산란함이 없으면 이것을 정념이라 한다.

정정^{正定}이란, 제법^{諸法}의 평등함을 바르게 통달하는 것으로, 그 바르게 통달하는 삼매에 머무르되 그것을 능히 초월하는 것이다. 또한 보살은 삼매에 머무르되 능히 일체유정을 해탈케 하며, 그 바르게 통달하는 것 또한 능히 초월하므로 이것을 정정이라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보살을 위하여 팔성도의 다함이 없는 성도^{聖道}를 평등하게 개시^{開示}하였다.

『보살장정법경, 菩薩藏正法經』 불교총전 발췌

18세기에 제작된 <백자 청화 투각 모란당초무늬 항아리>는 보기 드물게 내항아리와 외항아리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 귀하고 귀한 것을 담으려고 솜씨 좋은 도공에게 의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며, 이 특별하고 귀한 항아리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세련된 장식, 정교함을 담다

‘조선백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주로 달항아리를 필두로 한 순백자이거나 그림이 있어도 여백을 한껏 살린 절제미 가득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조선 전기 백자들은 대개 간결하고 단순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작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이 항아리는 기면 전체에 큼직한 모란꽃을 네 군데 배치하여 정성스럽게 양각한 뒤 시원시원한 투각 기법을 베풀어 화려한 장식미를 극대화했습니다.

투각 기법은 도자기의 형태를 만든 후 흙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기면에 문양을 그린 후 구멍을 뚫어내는 기법이기에 이 항아리는 제작 첫 단계부터 불에 구워내는 마지막 공정까지 손이 많이 가고 파손율도 높아서 남아 있는 유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백자는 세심하면서도 대범함을 품기는
보기 드문 작품입니다.

보물이 된 항아리, 박물관에 기부되다

1940년 7월 31일, 조선총독부는 관보 제4058호를 통해 ‘조선보
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제1조에 따라 새로이 보물로 지정
된 문화재들을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그 가운데 백자 청화 투각 모
란당초무늬 항아리가 포함되어 보물 제375호(구, 지정번호)로 지
정된 사실이 공표되었습니다. 원래 이 항아리는 (재)조선철도 부사
장인 니타 도메지로가 소유하던 도자기로, 그가 조선총독부박물관
에 기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1941년 12월 20일, 조선총독부박물관 협의원 네 명이
모여 항아리를 살펴보고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당시 전문가들을
협의원으로 위촉하여 유물을 기부 받는 것이 타당한지 검증을 거
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백자 청화 투각 모란당초무늬 항아리는 조선 후기에 제
작된 귀하고 특별한 백자 항아리가 일제강점기에 보물로 지정되고
박물관에 기부되기까지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소중한 유물입니다.



백자 청화 투각 모란당초무늬 항아리, 조선 18세기, 높이 26.5cm, 입지름 14.3cm, 바닥지름 16.5cm, 보물, K71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박해선〉 제공

무안황토갯벌에 서면

오대혁

동국대학교 고전문학 전공
문화비평가
논문 및 저서 <원효설화와 미학>
<금오신화와 한국소설의 기원>
공동시집<시의 끈을 풀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여
무안의 황토갯벌 앞에 서 볼 일이다

지상을 끌어당기는 달빛 스러져갈 즈음
그대는 아침을 기다리는
흰발농게 대추귀고둥과 만나리라

흐린 옥빛을 뚫고 태초를 끌어안은
갯벌을 고개 들어 멀리 바라보라

무상한 세월 뚫고 피어난
황홀한 칠면초의 숲

후줄근한 마음을 매무시하며
여름을 지나는 도요새 떼와 인사하리라

덧없는 삶의 한가운데 선
생명 앞에서 되살아나리라
무안의 낙지처럼 부드러워지리라



©Photo by 오대혁

좋은 날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여인은 수영을 못한다. 물속에서 걷는 게 고작이면서도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탓에 뒤통거리다가 물을 먹고 허우적거리기 일쑤다. 처음 수영을 배우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처럼 늘 등에다가 백 플로이트를 매달고도 앞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가 보기 안타까울 정도다. 하지만 여인은 늘 웃는다. 꽃무늬 요란한 수영복을 입으면서도, 신기한 듯 자랑스러운 듯 몇 번이고 수경을 썼다 벗으면서도, 몸매 무관 보무도 당당하게 수영장에 들어서면서도, 제법 선뜻해진 물에 소스라치면서도, 25m 레인을 250m처럼 걷고 나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물개처럼 날랜 이가 일으키는 거센 물살에 눈물 콧물을 빼면서도, 청하지 않은 사람의 등까지 벉벉 문질러 주면서도, 투박한 손으로 소꿉놀이라도 하듯 기초화장품을 찍어 바르면서도 여인은 웃으면서 말한다. 난생처음 수영장이라는 데를 와서 수영복을 입어보고 수경을 쓰고 수영이라는 걸 해 봤으니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 있겠냐고. 평생 농사일만 했다는 여인의 나이는 여든두 살. 해맑은 그 웃음에 담긴 진심, 여인의 좋은 날은 매번 몽클한 감동이다. 그래서 나는 그 여인을 할머니가 아닌 여인이라 부른다.

주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반 백수나 다름없는 프리랜서 작가로 지내고 있는 내게 묻는다. 무얼 먹고 사느냐, 돈벌이는 어느 정도냐, 노후엔 어떻게 할 거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봐라..., 걱정 같은 잔소리가 만리장성이다. 지금도 날 선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유유자적이 무능력이나 게으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작 나는 별다른 근심 걱정이 없다. 지치지 않을 만큼 적당히 일하고, 치열하지 않게, 여유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일상이 행복하다고 말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숨이 턱에 닿도록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쉬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가. 물질의 부족쯤이야 아끼고 줄임으로써 채울 수 있으니 오롯이 내 뜻대로 보내는 온전한 나의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감사할 수가 없다. 늦게라도 그런 행복을 깨닫게 된 나 자신이 대견하고 고맙다.

미국의 한 신문사에서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와중에도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이 언제인지를 묻는 공고를 냈더라. 쏟아져 들어온 행복 사례는 무려 5만여 가지. 돈이 많아서? 명예를 얻어서? 권력을 누려서? 아니다. 그 대부분이 '아침에 새소리를 듣는 행복, 예쁜 꽃을 보는 행복,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행복,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걷는 행복,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행복, 하루 일을 무사히 마친 행복' 등 평범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고 소박한 것들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우리 주변에 널린 많은 것들이 행복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너무 엄청난 것을 바라는 욕심 때문일 수도 있겠다.

네잎클로버의 행운을 찾느라 그만 무수히 많은 세잎클로버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인지. 법정 스님의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글에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고 찾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매일을 좋은 날로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매일 매 순간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막론하고 종파간의 소통과 화합이 아름다운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이니 해발 650미터,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경남 하동의 깊은 지리산 자락에서 살고 있는 강영구 루치오 신부님의 행복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한다. 48년간의 사목활동에서 은퇴한 일흔여섯 살의 강 신부님은 은퇴 사제관을 마다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지리산 골짜기, 청학동과 이웃한 원목계(元黙溪)에 둥지를 틀었다. 폐가를 구입해 몇 년에 걸쳐 손수 고친 작은 오두막을 '산을 우러러보는 집'이란 뜻의 '양산재(仰山齋)'라 이름하고, 웬만한 살림살이는 푹푹딱딱 직접 만들어서 쓴다.

손수 일군 텃밭에서는 일용할 양식이 되어 줄 푸성귀가 자라고 작은 정원에서는 철 따라 매화, 목련, 수국, 꽃무릇이 피고 진다.

매실과 다래가 익어가는 작은 과수밭과 뒷산 세쿼이아와 녹차나무 숲도 최소한의 것,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강 신부님 작품이다. 독립불구^{獨立不懼}, 홀로 서 있어도 두려움 없이 꽃피우고 열매 맺는 나무처럼 자연의 일부가 되어 고요히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강 신부님은 새벽 4시 반, 홀로 미사를 드리는 일로 하루를 연다. 최소한의 것을 갖춘 오두막에서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고자 노력하면서, 오가는 이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마을을 찾아 일손을 보태며 은퇴 사제로서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강 신부님의 매일매일 역시 좋은 날이 아닐까.

전북 익산 미륵산 해발 380m 깎아지른 절벽에 새 등지처럼 자리 잡은 사자암에서 20년간 상좌도 공양주도 없이 손수 밥하고 빨래하면서 살아가는 70대 중반의 노승 향봉 스님이 설파하는 ‘죽함도 넘침도 없는 가난한 행복, 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누리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행복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1980년대 <사랑하며 용서하며>로 60만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향봉 스님이 지난봄에 내놓은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과 여름에 내놓은 <산골 노승의 푸른 목소리>에 담긴 행복의 의미는 꼭 불자가 아니어도 한번쯤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향봉 스님은 말한다. 무엇이든 나누면 기쁘고 덜어내면 가뿐하다고. 있으

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롭다고.

‘남은 미역국에 밥 말아 먹으니 세상이 배 안에 담겨 부족함 없이 행복하다. 누군가 법당의 부처님 앞에 사과 한 알을 놓고 가, 그 사과로 후식까지 즐기고 있으니 이만하면 산골 늙은이의 화려한 점심을 마친 셈이다.’

-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중에서

‘행복은 만족에서 비롯되고 불행은 견종의 버릇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소유욕은 키울수록 병이 되고 욕심은 버릴수록 편안한 것이다. 넘침도 없이 지나침도 없이 소소한 일상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 <산골 노승의 푸른 목소리> 중에서

“건강은 최상의 이익, 만족은 최상의 재산, 신되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라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놀랄만한 성과나 눈부신 성취가 아니어도 행복할 일이 사방 천지에 가득하다. 많은 것을 덜어내고 비워야만 보이는 것, 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분명 좋은 오늘을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느 가을날의 꿈

지장 스님

청주 용화사 연수원장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인간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고 희망했던 것들은 예상할 수 없이 변덕을 부리고 있으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요인만 빼면 이러한 일들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거나 나쁜 일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은 무심히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어쩌면 건강한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에게 별을 주는 것도 인간을 걱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단지 복잡한 인과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바람, 비, 뜨거운 열기, 다양한 소리들, 냄새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현상들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아름답고 추한 것도, 더럽고 깨끗한 것도 그리고 성스럽고 세속적인 것도 아닙니다. 모든 현상들은 오직 인간의 생각 안에서 인간중심으로 생각할 때 존재할 뿐입니다. 인간들은 인간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를 규정하며, 인간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것들에 무심합니다.

인간은 도덕이라는 관념으로 세상을 분별합니다.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 표면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 가짜와 진짜라는 프레임입니다. 이런 프레임은 인간에게 도덕적 갈등을 조장합니다. 성공과 성취, 욕망을 추구하며 살면서도 그런 세속적 가치에 치우쳐 사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영적인, 도덕적인 삶을 완성해 가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더 행복한 길임을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적당히 타협하여 이 두 가지 방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최선의 길이라고 여깁니다.

인간은 공통적으로 성찰, 겸손, 사랑, 봉사, 믿음 등의 실천 덕목을 중요시여기며, 더 나아가 본질을 깨닫거나 본질적 상태와 하나가 되는 것, 혹은 절대적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제시합니다. 도덕적 분별의 프레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욕망과 무지, 더러움, 죄와 문제, 불완전한 세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구원과 수행을 통해 가게 되는 사후세계는 깨끗하고 문제가 없고 완전한 이상적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양 극단에 치우친 사고입니다. 중도는 양 극단의 조화와 균형이 아닙니다. 양 극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잘 아는 것입니다. 양극단이 없다고 없는 것으로 보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절



대 긍정할 뿐입니다. 인간 인식의 스펙트럼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펙트럼은 주관적 실재가 됩니다. 당사자에게는 사실이고 진리이지만 부분적이고 상대적 진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일반화되거나 절대화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일반화 되고 절대시되면 서로를 속고 속이는 형국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와 신념이 주는 기쁨에 도취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사랑과 은총, 자비로 충만 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영혼의 플래시보가 아닐까요.

우리 마음에는 채워야 할 어떤 내용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위안, 자기만족을 주는 내용으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그것들이 모여 점차 진리로 둔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세계인 자기중심적, 주관적 세상이 형성되어 갑니다. 중국 선종의 3조 승찬 대사가 지은 <신심명>의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至道無難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唯嫌揀擇 오직 분별을 꺼릴 뿐이다.
唯滯兩邊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으니
寧知一種 어찌 한가지임을 알 수 있겠는가.
不用求真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唯須息見 오직 망녕된 견해만 실지어다.
二見不住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慎莫追尋 삼가 쫓아가 찾지 말라.
一心不生 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萬法無咎 만법에 더러움도 없느니라.
無咎無法 더러움이 없으면 법도 없고
不生不心 생겨나지 않으면 마음이라는 것도 없다.

각자의 업*에 따라 삶이라는 정답은 다릅니다. 어떤 것이 더

정답이라고 정한다는 것도 우스운 소리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답으로 보거나, 혹은 다 답이 아니라고 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무상^{無常}하다는 것은 변화와 이동을 의미합니다. 방편상 나름의 방향성이 있으면 멀미를 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고 쉬지 못하는 병에 걸리는 부작용도 따릅니다.

세상을 보는 시력과 독해력이 더 좋아지면 심리적 변화와 움직임의 거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언젠가 심리적으로 변화와 이동이 멈추고 방향성과 좌표, 마찰, 갈등마저도 사라지는 차원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대로 실 수 있겠지요. 그런 차원이 있다면 분명 지금 이 순간 여기일 것입니다. 한 바탕 꿈을 꾸어봤습니다.

木頭雕作小唐鷄 나무토막 조각해 작은 당닭 만들어
筋子拈來壁上樓 젓가락으로 집어서 벽 위에 올려두네
此鳥膠膠報時節 이 닭이 꼬끼오 시간 맞춰 울면
慈顏始似日平西 그제야 어머니 지는 해처럼 늙으시기를

- 이제현(1287~1367), <익재난고> 권4

이 시는 본래 고려시대 문충^{文忠}이란 효자가 지은 것이다. <고려사> 권71 <악지>에 따르면, 문충은 오관산 아래에 살았는데 30리 길이나 되는 개성을 매일 오가며 벼슬살이하야 받은 녹봉으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는 아침저녁으로 문안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여 이러한 노래를 지은 것이다.

시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다. 악부는 본래 민간의 노래를 수집한 것에서 비롯된 형식이므로 내용도 일반 백성들의 정서를 그대로 담아 진솔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효자가 나무토막을 가지고 작은 당닭을 조각하였는데 그 크기는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다. 이를 벽 위 햇대에 올려놓고 이 나무
닭이 울어 때를 알리면 그때야 비로소 어머니가 석양에 지는 해
처럼 늙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나무 닭이 울리가 없으니 불가능
한 것을 전제로 하는 시인의 마음에서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
라는 마음을 더욱 간절히 느낄 수 있다. 불로불사를 바랄 수는
없으나 되도록 더디 늙으시기를 기원하는 것이리라.

언젠가부터 나이가 들면서 주변 지인들을 장례식장에서 만나
는 일들이 잦아진다. 부모의 늙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식의 성
장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버겁다. 한때는 단단한 벽 같았고, 한
때는 온 세상 같았던 부모가 조금씩 작아지고 약해지고 위축되
어 가는 모습은 아직 낯설기만 하다. 효심의 발로라기보다는 아
직은 좀 더 내 손을 잡아주었으면, 비밀 언덕이 되어주었으면,
찾아가면 양상한 손목으로 여전히 내 등을 쓸어주기를 바라는
욕심으로 부디 더디 늙으시길 바란다. 나의 이 쪼그라든 세상이
아직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잘 가, 베짖이!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궁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조카 내외가 쌍둥이들을 데리고 왔다. 꼬마들이 이제는 제법 종알댄다. 마당에서 깡충대다가 베짖이를 보고는 눈이 뚱그래진다. 그건 베짖이야.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금방 ‘베짖이’라고 잘도 따라 한다. 아기들이 새 단어를 배우고 그것을 웅알거리는 양을 보면 참으로 사랑스럽다. 사람만이 지닌 이 능력! 그런데 이 능력이 행복을 부르는 진짜 능력이 되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자연에는 본래 그 어떤 이름도 없다. 이름이란 138억 년의 우주사가 99.999% 흐르고 나서야 생겨난 인간이라는 족속이 지어낸 자의적인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서로 어떤 약속을 해두고 그 약속을 소통을 위한 편리한 도구로 쓰는 것이다. 아기들은 그 도구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며 어른이 되어간다. 그래서 ‘나’라고 지칭되는 ‘나’가 여기 ‘있고’ ‘베짖이, 국화, 배추’라고 지칭되는 것들이 저기 ‘있다’는 것을 추호의 의심도 없는 기초 신념으로 삼고 만다.

그러나 본래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덩어리 존재계를 개별

적인 실체로 나눈 것에서부터 갈등과 불만이 시작된다. 전체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인 ‘나’는 또 다른 파편인 ‘너’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가하고 끌어들이거나 밀어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무수 파편들을 어찌 다 제 뜻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름으로 조각내는 그 순간, 이미 욕구불만이, 피아전선이, 예고의 지옥이 시작되고 마는 것이다.

이 존재를 ‘나’라는 이름으로 지칭한다. 그러면 즉시 무언가 견고한 방어선이 둘러쳐지고 긴장감이 서린다. 그런데 아무 이름 없이, 본래대로 그냥 존재하면 가슴이 텅 비고 어떤 울타리도 느껴지지 않는다. 무한감이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어떤 이름으로도 갈라지지 않고 모두가 하나이던 태고, 우리의 의식은 그 태고의 평화감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감각, 인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느낌을 느끼는 이 신비한 의식! 그 느낌이 좋은 것을 행복이라고 하고 지고하게 좋은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엄마, 이제 벌레 잘 가라 할래.” 비닐봉지에 베짖이를 넣어서 들고 다니며 좋아하더니 이제 그만 놓아주고 싶단다. 예쁘고 예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에 누군가가 자취방 문을 두드리더군요. 열어보니 그렇지 않아도 얼마간 학교에서 보이지 않아 궁금해 하던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개량한복을 입고 머리를 삭발한 채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배는 내일 아침 출가하러 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고, 다음날 함께 버스를 타고 절로 가고 있었습니다. 선배의 세속 떠나는 마지막 길을 축복해주고 배웅해 주고 싶어 함께한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선배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같이 가자!”

제가 피식 웃으며, 모르는 척 하고는 “같이 가고 있잖아요.” 라고 했더니, 웃으며 그게 아니고 함께 출가하자고 말하더군요. 어차피 너도 언젠가는 출가할거고, 그 인연이 지금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가는 오래 고민하고 떠나면 안 되

쁜 아기들! “또 올게요.” 하면서 볼에 보보를 한다. 아이고, 부드럽고 촉촉한 이 촉감이라니! 그렇지 아기들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이름이라는 실체들을 놓아주렴. 그 이름이 도구임을 알고 편리하게 쓰기만 하렴. 그리하여 너희들의 그 본래의 천진함으로 너도 나도 없이 훨훨 무한히 행복해지렴. 사랑하고 사랑한다. 우리 아기들.

고, 인연이 닿을 때 그저 한 생각 돌이켜 저지르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이더군요. 물론 저는 멧쩍게 웃으며 ‘장난치지 말라’며 웃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5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선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 같이 갑시다!”

선배는 당신이 말해 놓고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놀라면서 아니라고, 그냥 농담인데 뭐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였느냐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출가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없이 저지르는 것’이라는 선배의 그 한 마디가 큰 울림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제 안에는 언젠가부터 분별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보다는 마음 날 때 먼저 저지르고 그 뒤는 우주법계에 내맡기며 사는 방식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함께 절로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저의 출가는 2년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내맡김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되어 받아들여지기로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인도 여행 중에 만난 노부부가 있었는데, 두 분은 손 꼭 잡은채 직접 걸망을 짊어지고 기차표를 끊으며 배낭여행을 다니고 계셨지요. 그 분들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 젊었을 때 꼭 해보고 싶었지만 잘못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남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하는 마음 때문에 해 보지 못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젊었을 때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최대한 많이 실천해보고 여행도 떠나보고, 도전도 하고 실패도 해보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회만 하다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여행을 떠나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남들의 시선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계산하고 분별하는 온갖 생각들 때문에 하고 싶으나 선뜻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것은 경험과 도전 속에서, 실패와 역경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 아닐까요?

저질러 봄으로써 직접 삶 속으로 뛰어들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목적이자 의미일 것입니다.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실천하고 몸으로 행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 '법상 스님의 묵탁소리' 공식 카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우정에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자식과 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존경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며, 기업과 기업 간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기업 윤리가 무너져서 거래가 끊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속이란 이렇게 중요한 실천 덕목인데 사람들은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과 한 약속엔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세상인데 하물며 나를 믿어줄 사람은 더군다나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도 중요하지만 요즘 우리는 너무도 바쁜 일상을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서두르는 경향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뛰어가려는 생각을 가졌다면 늦지 않게 미리 앞서서 가고 어차피 늦을 거라면 뛰어가지 말고 그냥 걸어서 가십시오. 후회할 거라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였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옛 말에 죽은 박사보다 살아있는 멍청이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런 말이 떠돌아다닙니다. 자식을 잘 키우면 국가의 자식이 되고, 그다음으로 잘 키우면 장모의 자식이 되며, 적당히 잘 키우면 내 자식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는 하수도가 막히거나 또는 전구가 나갔다고 해서 외국에 있거나 멀리 있는 자식을 부를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일 년에 겨우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고, 평생 사진을 통해서나마 겨우 만날 수 있는 손자들을 내 손자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랑 이야기를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영어 단어 중에 ‘Family’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언어 조탁이긴 하지만 ‘Family’의 어원을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첫 글자들을 합성한 것이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면 삼년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삼십년이 행복하며,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삼대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한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결혼식 세 시간의 행복이 보장되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통장 세 개의 행복이 보장되며, 가슴이 따뜻한 남자를 만나면 평생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말할 합니다. 이렇듯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의 삶 가까이 있는 소박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권세와 명예, 부귀영화를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을 청렴 결백하다고 말하지만 실은 가까이하고서도 이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청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고상하다고 말을 하지만 권모술수를 알면서도 이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더욱 더 고상한 인격자라고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삶을 생활화하며 청렴한 인격자에 약속을 소중히 할 줄 알며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모든 구성원들이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함께 실천하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사 박문수 설화 속 여성장애인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이사
 <E美지> <순대평론> 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구비문학과 설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인 <한국구비문학대계 5-4>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설화인 어사 박문수 관련 구전문학에는 여성장애인이 등장한다.

박 어사가 팔도 암행을 하던 중 강원도 홍천을 갔는데 산길이 험준하고 해도 넘어가서 하루 머물 곳을 찾다가 단칸 부엌에 방 하나 있는 집이 보였다. 그곳에서 하루 묵을 생각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절세미인이 물을 길고 있었다.

박 어사는 젊은 여인에게 깊은 산속 인가人家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묻자 그 여인은 남편이 있으며 남편은 강원도 ‘엄씨’라고 했다. 박문수는 절세미인을 보고 남자로서 그냥 갈 수가 없으니 하루 저녁 동침을 하자고 말했는데, 여인은 좋다고 하며 산 위에 올라가 있다가 방에 불이 꺼지면 들어오라고 했다.

박 어사는 그 여인이 시키는 대로 방에 불이 꺼지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와 동침을 했는데 새벽에 동이 터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니 박 어사가 봤던 절세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슴 앞과 뒤가 불룩이 튀어나온 척추장애인이었다. 박 어사가 혼비백산하여

나가려고 하자 그 여성장애인은 박 어사의 도포자락을 잡았다.

그 여인은 절세미인의 시누이로 만석군 엄씨 집안 딸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글을 배운 천하문장가였다. 박 어사는 여인을 뿌리치고 나가면서 부채를 놓고 갔다. 그 여인은 그 남자의 성씨가 박가朴家라는 것 밖에는 몰랐다. 시간이 흘러 그 여인은 아들을 낳았다.

동네 아이들은 아들에게 어미는 곱사등이고 아버지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호래자식이라고 놀려댔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아마도 박 어사가 남기고 간 부채에 박문수라는 사람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던 듯하다. 여인은 재산이 제법 되었기에 한양으로 가는 아들이 고생을 하지 않도록 노잣돈을 두둑하게 챙겨주었다.

한양으로 간 아들은 한 옛장수에게 박 어사의 환갑잔치 소식을 들었다. 그 당시 옛장수는 엿을 팔기 위해 안가는 곳 없이 전국을 다녔고, 엿을 사러 모인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통에 정보통이자 소식통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들은 박 어사의 환갑잔치 날에 맞춰 찾아갔다. 평소에 가면 문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도착해보니 인심 좋게 걸인들도 먹이고, 스님들은 그



©Artist Catherine Kay Greenup

집 앞마당에 자리를 깔고 대접을 받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박 어사의 환갑을 축하해주고 있었다.

“어사 나으리, 한 청년이 이 부채를 갖고서 우리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요.”

그렇게 박 어사는 청년을 만났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아들은 부채를 찢 도포자락을 펴서 박 어사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과거 여인이 박문수를 못가도록 붙잡다가 찢어진 도포자락이었던 것이다.

“우리 외가는 강원도 엄씨요. 우리 어머니는 안팎 곱사등입니다.” 박 어사는 곱사등이라는 말에 그 여인을 바로 떠올렸다. 박 어사도 항상 그 여인을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어

사 박문수는 무려 19년 만에 아들을 만났다. 당시 박문수는 딸만 셋을 두었기에 대가 끊길 뻔 했으나 여성장애인 덕분에 대가 이어진 것은 물론이고, 그 아들이 결혼 후 아들을 8명이나 두게 되어 집안이 번성하게 되었다.

환갑잔치를 하고 3년 후인 1756년, 박 어사는 6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비록 아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는 못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장애여성과의 하룻밤이 헛되지 않았기에 안심하고 눈을 감았을 것이다.

어사 박문수는 조선시대 인물 중 구전설화가 가장 많이 전해지는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놀랍게도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박문수가 등장하는 설화는 무려 97건이나 되는데, 이는 박문수가 그만큼 서민들과 가까이 하며 소통했음을 뜻한다.

『아함경』에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뜻의 ‘여시아문^{如是我聞}’으로 시작하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제자들이 자신이 들은 부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듯이,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문학도 전혀 근거 없는 일은 아니다. 구전문학에서 장애여성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장애인 포용 사회의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개월 전 코로나에 걸린 후 완치되었지만 코로나 후유증이 남아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처음에는 예전에 아팠던 곳이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고, 몸은 피곤하여 무기력증이 생겼다. 단음사 경내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고, 사택에 치우지 못한 불필요한 것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코로나를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증상은 다르겠지만 나와 같은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다.

최근 코로나 대유행 이후 무기력과 우울감이 확산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 사람이 태어나 늙고 병들면서 몸의 변화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두 번째 화살을 맞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었다. “만약 누군가의 화살에 맞으면 아프겠는가?” 제자가 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제자에게 물었다. “만약 똑같은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더 아프겠는가?” 제자가 말했다. “몹시 아픕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아 있는 한 누구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한 감정적 고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적 대응이다. 세상의 많은 성인들이 말하길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고통 대부분은 스스로 자신에게 쏜 두 번째 화살이다. 사람들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기 시작하며 그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의 고통을 몇 배나 증가시킨다.

류시화의 산문집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에 있는 내용이다. “한 여성이 20년 전에 이혼을 했다. 그 20년 동안 그녀는 전 남편의 부당한 행동에 화가 난 채로 고통스럽게 살았다. 자식들과 친구들 앞에서 그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남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와도 한 달 이상 만나지 못했다. 스스로 쏜 두 번째 화살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서 사랑의 감정이 싹틀 공간이 없었다.

분노로 인해 그녀의 삶은 얼어붙었으며, 모든 관계가 제한적이었다. 백혈병 선고를 받고서야 그녀는 분노를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하지 않고 삶을 허비한 것이 너무 후회되었다. 인생수업의 저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즈를 찾아온 그녀는 평화롭게 살 수는 없었지만 평화롭

게 죽고 싶다고 고백했다. 스스로에게 쏜 두 번째 화살이 자신의 삶을 망쳤음을 늦게야 깨달은 것이다.”

밖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피하거나 숨으면 그만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쏘아대는 두 번째 화살은 피할 길이 없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는 지름길이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아 대기에는 우리의 남은 삶이 너무나도 짧다.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독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안좋은 일들을 정신적 고통을 주며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삶이 때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고통에 대한 어리석은 대응은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들의 ‘업’이지만,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나의 ‘업’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나에게서 나간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한 모든 행위는 이 우주법계 어딘가에 남겨진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나간 모든 것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것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사)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 상임고문
 80여 편의 논문 발표, 20여 권의 저·역서 발간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연구> 등 3권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승랑,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한국연구재단 10년 대표 연구 성과 선정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지금은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겠지만, ‘되’나 ‘말’은 쌀이나 콩, 팥 같은 곡식의 분량을 잴 때 쓰는 용기用器였다. 또는 그런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이기도 했다. 한 되의 약 1.8리터로 페트생수병 하나 정도의 부피다. 열 되가 한 말이기 때문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나중에 그가 나에게 그 열 배를 되돌려준다는 뜻이다.

불교교리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인과응보의 가르침일 것이다. 누구나 업을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는다. 선업을 지으면 즐거운 과보를 받고善因樂果, 악업을 지으면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惡因苦果. 제3의 어떤 절대자가 나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에 상응하는 고통 또는 낙樂의 과보를 주는 게 아니라, 업이든 과보든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자업자득이라고 한다.

그런데 보시행의 경우 이런 인과응보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식으로 일어난다. 즉, 작은 보시의 선업을 지었는데, 큰 과보를

받는 것이다. 『대지도론』에서는 보시의 공덕을 설명하면서, “축생에게 보시하면 100배가 되어 돌아오고, 악인惡人에게 보시하면 1000배가 되어 돌아오며, 선인善人에게 보시하면 10만 배가 되어 돌아오고, 욕심을 떠난 사람離欲人에게 보시하면 10억 만 배가 되어 돌아오며, 수다원과 같은 성인들께 보시하면 무량한 복이 돌아온다.”고 가르친다.

이 경문의 교훈은 두 가지다. 첫째는, 보시의 선업을 지었을 때 그에 대한 과보가 1:1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100 이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고, 둘째는 ‘보다 선善하고 수행의 경지가 높은 분’에게 보시할수록 그 과보가 크다는 점이다. 심지어 짐승이라고 해도, 내가 밥을 한 끼 먹여주면 그런 보시의 공덕으로 인해 내가 100끼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과보를 받는다.

또, 불교 수행의 길에서 수다원의 지위에 오른 성인聖人에게 보시할 경우 무량한 복이 돌아온다. 그 대상이 짐승이든 인간이든, 인간의 경우 악인이든 성인이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시할 경우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100배 이상, 많게는 무량한 복덕의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다. 사실 그런 것 같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짐승이든 인간이든 다른 생명체

에게 크게 보시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세 끼 밥을 넉넉히 먹고 살아가는 것은 아마 되로 주듯이 몇 번 보시했던 일에 대해 말로 받고 있는 과보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작은 보시로 큰 과보를 받았던 일화는 아쇼카왕의 전기인 <아육왕전>에도 실려 있다. 불교에 귀의한 후 무력이 아니라 다르마에 의한 통치를 선언했던 아쇼카왕은 전생에 덕승(德勝)이라는 이름의 어린아이였는데 동생과 흙으로 성(城)을 만들면서 놀다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시던 석가모니부처님을 뵈었다. 덕승동자는 흙으로 만든 성 안의 창고 자리에서 흙 한 줌을 움켜쥐고서 '보리'라고 부르며 부처님께 시주를 올렸고, 부처님께서서는 이를 기꺼이 받아주셨다. 덕승동자는 이 보시의 공덕으로 인해 그 다음 생에 인도대륙 거의 전역을 통일한 아쇼카왕이 되었다고 한다. 되로 주고 말 이상으로 받는 엄청난 과보다. 그를 받아주신 분이 성인 중의 성인이신 부처님이셨기 때문이다.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
지전통등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다.



널뛰기

PART 1. 한국의 풍속

- I. 사신
- II. 화성원행반차도
- III. 무예 24기
- IV. 전래동화

- V. 시집가는 날
- VI. 삼일유가
- VII. 조선의 풍속**
- VIII. 12자신



암행어사 박문수

VII. 조선의 풍속 (Customs of Joseon)

사회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생성되고 행해온 생활습관이나 세
태 등을 풍속이라고 한다. 풍속은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
주衣食住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암묵적인 사상까지 포
괄적으로 일컫는다.



대장간



전통혼례



씨름



점심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강남구에 60여 곳 이상 자리 잡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연합



01 공갈젖꼭지에 집착하는 아이

02 고기만 먹고 채소는 안먹는 아이

03 잘 먹지 않거나 음식을 입에 물고 있는 아이

04 제자리에서 안먹고 돌아다니면서 먹는 아이

05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

06 소변을 참다가 옷에 실수하는 아이

07 씻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08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09 계절과 상황에 안맞는 옷을 입으려는 아이

10 스스로 옷과 신발을 벗지 않으려는 아이

08.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우리 아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이가 빨리 난 편이다. 그러다보니 또래 아이들보다 빨리 충치가 생길까봐 신경이 쓰인다. 아이들의 치약은 대부분 향이 좋고 맛이 달콤해 치약을 빨아 먹지만 칫솔질을 하려고 하면 발버둥을 친다.

원인

- 1) 깨끗하게 이를 닦지 않으면 충치가 생길 수 있다는 부모의 불안한 마음에 아이를 강제로 잡고 양치를 한 경우
- 2) 양치를 할 때 부모가 지나치게 힘을 주고 닦여 잇몸이 아팠던 경험을 한 경우
- 3) 부모의 지나친 청결 의식으로 아이에게 깔끔함을 강요한 경우

지도방법

- 1) 양치할 때 양치송을 부르며 아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2) 자일리톨 사탕 만들기과 같은 이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본다.
- 3) 부모가 양치하는 모습을 자연스레 보여주면서 이를 닦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본존 양 끝의 액자는 무엇일까요?

해광 정사
시법사 주교

총지종의 본존 <옴마니반메훬>의 양끝에는 만다라(진언) 액자가 있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무엇을 나타내며 뜻은 무엇인가 궁금했었지요. 진언은 산스크리트어(범어)로 되어 있으며, 인도어(글자)입니다. 사진에서 왼쪽 액자의 글자는 <광명진언>이고, 오른쪽 액자의 글자는 <준제진언>입니다.

왼쪽의 액자의 <광명진언>은 글자 수를 맞추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수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총지종은 광명진언을 ‘옴 아모카 비로자나 마하무드라 마니반메 즈바라 파라파티야 훬’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왼쪽 액자의 광명진언은 현교에서 읽히고 사용되는 진언의 글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현교에서는 산스크리트어를 원음과 가깝게 발음하고 있으나, 총지종에서는 발음하기 쉽도록 부드럽게 고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점은 종단의 *사상적(事相的) 차별화에 있습니다.

광명진언의 뜻은 ‘귀명합니다. 불공성취불, 비로자나불, 아촉불, 보생불, 아미타불님. 시방에 가득하신 모든 부처님 크신 광명



광명진언

준제진언

이 어느 한곳 빠짐없이 비취지시어 고통 속 중생들에게 어서 해탈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오른쪽 액자의 <준제진언>은 ‘나무 싯다남 삼막삼똥다 구치남 단야타 옴 자레주레 준제 사바하 부림’입니다. 준제(準提)란 관세음보살의 변화관음인 육관음의 하나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를 뜻합니다.

‘나무’는 귀의하다는 뜻이며, 칠구지불모의 준제보살님께 귀의한다는 말이며 ‘싯다남’은 일곱^七의 의미입니다. ‘삼막삼똥다’는 본래 ‘아녹다라삼막삼똥다’란 말로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정등각(正等覺)의 뜻입니다. ‘구치남’은 역(億)의 뜻, ‘단야타’는 이와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합치면 ‘귀의합니다. 바른 깨달음을 얻은 칠억 부처님이시여!’ 라는 뜻이 됩니다.

‘옴’은 거룩함, 귀명 ‘자’ 공^궐, ‘레’ 청정, ‘주’ 불생불멸, ‘레’ 앞과 동일, ‘준제’ 준제보살, ‘사바하’ 성취, ‘부림’ 주재자라는 의미이며, 즉 ‘옴! 나아가소서! 일어나소서! 준제보살이시여! 성취하소서, 주재자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진언은 가급적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불보살의 참된 말씀이므로 말로서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령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생근기가 낮아 그 뜻을 알지 못하고는 진리에 다가갈 수 없으므로 깊은 뜻을 알기 위해 풀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진언은 범어를 한문으로 음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식 발음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 변형된 음이 우리나라로 오면서 한 번 더 변형되어 실제 범어와는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산스크리트어로 ‘옴마니반메훴’을 티벳은 ‘옴마니뽕메훴’ 이라 하고, ‘사바하’는 ‘스와하’라고 읽습니다.

*사상^{事相}

(불교) 밀교에서 조단, 관정, 인계, 진언 따위의 밀교적 상징으로 표현됨.

지난 호 정답

①㉠ 경	로	㉡ 법	회		㉢ 산		②㉣ 이	뿐	㉤ 이
복		구		③ 무	해	무	득		탈
④ 궁	㉥ 예		㉦ 천		진				리
	지		생		⑤ 미	스	㉧ 코	리	아
	⑥ 몽	당	연	필			펜		
㉨ 서			분				⑦ 하	회	탈
리		㉩ 선			⑧㉪ 콜	라	겐		
⑨ 태	풍	의	㉫ 눈		로			⑪ 추	㉬ 석
			⑩ 사	도	세	자			굴
⑫ 가	을	바	람		옴		⑬ 현	무	암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㉓				㉒			②㉑		㉑
			③						
④		㉑							
⑤㉑					⑥㉒			㉑	
				⑬					
⑦		㉒			⑧				
				⑨㉒			⑩		
⑪						㉑			
			⑫						

가로 열쇠

- ①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씩 종단의 승직자들이 모여 수행을 점검하는 큰 행사
- ②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의미로 단군 왕검이 고조선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
- ③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불교총지종 종립 중학교
- ④ 불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노래로 불교가요의 총칭
- ⑤ 정답게 이야기하거나 의중계 지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⑥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겪고 간신히 살아남을 이르는 말
- ⑦ 넓고 커서 끝이 없는 자비
- ⑧ 허리가 잘록한 통의 양쪽에 가죽을 붙인 국악에서 빠질 수 없는 타악기의 하나
- ⑨ 육체와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 ⑩ '마드리드'가 수도인 무적함대로 대표되는 국가
- ⑪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 방망이를 든 귀신
- ⑫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
- ⑬ 아무도 손대지 않은 분야의 일을 처음 시작하여 새로운 길을 닦음

세로 열쇠

- ㉑ 귀주대첩의 신화를 만든 고려의 명장이자 영웅
- ㉒ 이로움과 해로움을 이리저리 따져 헤아리는 일을 뜻하는 말
- ㉑ 학교의 개교를 기념하는 날
- ㉑ 세상에 건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
- ㉑ 신라 장보고가 '사람이 가히 살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국내 최서남단에 있는 섬
- ㉑ 총지종 불공의 공공서원으로 다섯 세대에 걸쳐 부처님의 법을 제도하는 것
- ㉑ '아홉 자나 되는 큰 키'라는 뜻으로 키가 아주 큰 사람을 이르는 말
- ㉑ 프랑스의 작가이자 공군장교이며 '어린 왕자'의 작가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
- ㉑ 외부에 비밀로 함, 또는 그 비밀
- ㉑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
- ㉑ 중국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 등지에서 발생하는 모래 폭풍과 흙먼지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훤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밀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감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노남동)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인생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 그리고 사랑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 공허해진 마음을
채울 길이 없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손을 내밀며
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스한 마음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닌
몸과 마음이 비어 있는 자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곁을 내주며
따뜻하게 손잡아 줄 때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꽃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우리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잡지 '좋은 생각 가을호' 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이 가을엔 우리 모두 사랑을 하자
지난 계절 한 여름 밤을 하얗게 밝힌
상처 받은 가슴을 깨끗이 털고
한 번도 상처 받지 않은 것처럼
친구여 이 가을엔 사랑과 동행을 하자.”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윤서 법 공 보명심 안한수 오승현
오채원 오현준 우 인 이수영 이목종 이인성
이혜성 자선화 정화연 총지화 한철수

(사)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일동(무순)

지회) 박차봉 강영철 박영중 조덕제 옥장운
윤병재 김갑태 박종한 김상길 김인규
황규철 이정식 김영옥 이금숙 여성숙
배여진 김정순 김행숙 서순옥 서금순
박영구 조장현 박태수 김일량 장승재
본회) 최우성 조현숙 최금란 박정미 정봉채
박봉수 전제우 김진문 윤종일 김석한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http://www.chongji.or.kr>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 행 일 총기 52(2023)년 10월 1일

발 행 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김상미

발 행 불교총지중

주 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 화 02-552-1080~3

팩 스 02-552-1082



10월호



진리에는 근신하고 현실에는 과감하라

- 환당 대종사 법어록 중에서 -